



■ 농경연, 연구사업기구 조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진) 은 7월 3일 연구위원이 모두 충원됨에 따라 연구실을 3개에서 농업발전연구, 농업유통연구, 자원및생산연구, 농촌지역개발연구등 4개분야로 개편하는 등 연구사업기구를 조정했다.

한편 동연구원은 지난 6월말 「농업경제」 7권 2호를 발간하는 한편, 「지역농업과 복합영농」 「경제발전과 미곡정책」 등 2권의 연구총서를 펴냈다.

동연구원은 또 7월 9일자로 「농업경제정보」를 창간, 제 1호를 내보냈다.

■ 최양부박사, 연구위원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월 1일자로 최양부 수석연구원을 연구위원에 임명했다.

최박사는 서울대 농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미조리대학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78년부터 동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일해 왔다.

■ 한국축산학회장에 김동암교수

한국축산학회는 지난 6월 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김동암 (서울대) 교수를,

부회장에 한석현 (건국대) 교수를 선임했다.

한편 김동암교수는 노르웨이에서 열린 유럽 초지연합회의에 참석한후 스위스, 덴마크 등을 둘러보고 7월 16일 귀국.

■ 농축수산유통연구원

농산물유통연구소의 명칭이 농축수산유통연구원 (원장 류달영) 으로 변경되었다.

■ 배합사료 품질조사위원회 구성키로

- 배합사료 품질향상을 위한 간담회에서 -

배합사료 품질향상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7월 16일 사료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석자

학계 : 한인규 (서울대), 맹원재 (건국대), 김창원 (KAIST), 지규만 (고려대)

사료협회 : 권배, 김세현

사료회사 : 이현범 (퓨리나), 전남수 (우성), 문철명 (현대), 원용택 (대한)

양축업계 : 황인옥 (대한양계협회), 한백용 (대한양돈협회), 김남용 (한국 낙농유우협회)

언론계 : 윤봉중(농수축산신문)

● 일시 및 장소

7월 16일(월) 사료회관 소회의실

● 간담회 내용

〈배합사료 품질 현황〉

일부 양축가의 견해에 따르면 작년 10월 이후 즉 곡류 다변화 시행 이후 배합사료의 품질이 저하 되었다고 하나, 배합사료 회사측은 곡류 다변화 시행 이후 곡류사료 사용량이 증가되어 (약 8% 정도) 사료 효율이 오히려 개선되는 방향으로 원료 구매 환경이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쨌든 배합사료의 품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축가측 요인으로 △ 전반적인 축산 경기의 후퇴로 인한 적정 품목사료의 불사용 및 감량 급여, △ 지난 겨울의 혹한으로 인한 가축 생산성 감소, △ 불현성 질병의 출현, △ 환기, 점등, 급수 등 사양 기술의 미비, 더우기 불경기로 인한 관리 소홀이 사양관리 환경을 더욱 나쁘게 한 요인으로 요약 되었다. 둘째 배합사료 회사측의 요인으로는 △ 곡류 다변화의 급작스런 실시 및 이에 대한 사양가 홍보 부족, △ 배합사료 판매시 파다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품질문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등이 요인으로 요약되었다.

〈현안문제 해결 및 품질 향상 대책〉

(1) 배합사료 품질조사 위원회 구성

배합사료의 품질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객관성 있는 인사들로 배합사료의 품질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료분석, 사양시험 및 현장 조사등을 수행함으로써 배합사료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양축가들의 배합사료의 품질에 관련된 불만처리 기능도 이러한 위원회가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요망된다.

(2) 농수산부 품질관리 위원회의 소집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배합사료의 품질을 진단하고 사료 관리법 시행령 개정, 성분 한도량

개정, 배합사료 품질 향상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품질관리 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 각항을 재검토함이 요망된다.

가. 주요 아미노산의 검사

나. 에너지 함량의 검사

다. 사료위생 검사의 신설

라. 배합사료 생산 품목 추가 및 자율화

마. 사료의 지방함량 검사 기준의 하향 조정 (2.5% 정도)

(3) 교육 및 홍보 강화

양축가의 사양관리 기술의 혁신을 이룩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기 위한 사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며, 배합사료의 품질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배합사료 품질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활동 강화의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사료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품질이 우수한(사료효율이 우수한) 배합사료의 생산과 공급도 중요하지만 양축가의 사양환경 개선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때 생산자와 공급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의 형성이 건설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같이 하였고 흔히 발생할수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라도 이러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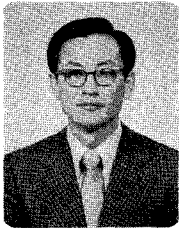
■ 계육유통효율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축산기업조합중앙회 계육분회(분회장 박태권)는 효율적인 계육유통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7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신길동소재 분회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시관계자, 도계장측, 유통상인, 본회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계육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공동관심사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전망이 좋은 닭고기사업이 현재 생산, 위생, 유통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 관련업계 모두가 협심하여 공동적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 육류유통의 개선방향 발표회

— 한국식품유통학회 7월 12일 —



(윤 효 직)
(식품유통학회회장)

한국식품유통학회(회장 윤효직)는 7월 12일(목)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육류유통의 개선방향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육류의 소비가 매년 증가하여 이제는 주식의 위치로 발돋움하려는 이때 육류유통에 관한 업계의 관심을 대변하는듯 대회의실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우리의 가장 낙후된 부분인 축산물 유통상의 문제점과 대책이 계속 제기되어 해결되기를 바랐다.

주제발표자 및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육류수급의 현황과 전망... 허신행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육류포장과 유통개선 ... 성배영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육류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 윤효직 박사
(건국대교수, 식품유통학회 회장)

■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예정

한국가금학회(회장 오봉국)는 오는 8월 25일(토) 오전10시부터 수원시 서문동소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강당에서 84년도 제 1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 제17차 세계가금학회 참가 결과보고 ▲ 총회 ▲ 학술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다.

■ 수매 닭고기 방출

농수산부는 최근 복중성수기를 맞아 닭고기 값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6월 전국적으로 수매한 바 있는 닭고기(124톤상당)를 7월 24일부터 서울지역에 방출하고 있다.

대소비지에 닭고기 수급원활과 적정수준의 가격유지를 위해 방출하는 닭고기는 한국냉장(주)에서 자체 수매하여 냉동 비축한 바 있는 163톤의 닭고기도 함께 방출된다.

농수산부는 지난 6월초 닭값이 농장출하가격 650원 이하로 하락하자 본회의 건의에 따라 축협 중앙회로 하여금 800원을 상한선으로(경영비) 수매비축을 실시한 바 있다.

■ 종계수입은 농수산부장관 추천받아야

수출입 기별공고상 7월 1일부터 종계수입이 완전 개방되었으나 축산법이 8월 2일 개정 공포됨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수입하게 되었다. 수입이 자유화된 기간은 32일 간이었다.

■ 흑서기 가축사양관리 지도철저

농수산부는 최근 계속되는 폭서로 말미암아 전국의 기온이 30℃를 계속 웃돌자 지난 7월 27일 전국 시도 축산관계관 및 양계, 양돈 생산자 단체에 각농가의 흑서기 가축사양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했다.

각 양계농가에서는 고온다습기를 맞아 가축의 사양관리 부실에 의한 폐사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전국축산진흥대회 개최

농수산부는 적정사육유도로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우량종축선발을 통해 자질개량 촉진,

양축농가에 축산업의 중요성을 고취시켜 축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오는 10월 17일 부터 2일간(예정) 제10회 전국 축산진흥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축협중앙회가 주관하고 한국중축개량협회가 협조하게 되는 이번 축산진흥대회는 지난 1982년에 이어 격년제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전국축산진흥대회는 ▲가축품질평회 ▲축산진흥 포상 ▲축산물유통품 및 기자재 전시등이 행해질 예정이다.

■ 경기도 양주축협 사료공장 기공

경기도 양주축협(조합장 박상현)은 지난 6월 29일 이득용 축협중앙회장, 관내 기관장,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합사료공장 이전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양주축협의 배합사료공장은 양주군 회천면 덕계리 소재 33,000m²의 대지에 19억여원의 자금이 투자될 예정인데 일일 생산능력 200M/T 규모로서 85년 4월말 준공될 예정이다.

■ 84축협 새마을 장학생 선발

축협 중앙회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조합원의 자녀 및 형제들을 축산진흥의 새 역군으로 육성시키고 이들을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기수로 참여시키기 위해 전국의 회원조합 조합원의 자녀·형제 가운데 373명을 선발, 지난 7월 4일 각 회원조합을 통해 1인당 100,000원씩 총 37,300천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을 도별로 보면 서울·제주지역이 4명, 경기도 48명, 강원도 33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9명, 전남 57명, 경북 64명, 경남 61명 등이다.

■ 축산물 유통예고제 실시

축협 중앙회는 소와 돼지를 주 대상으로 하여 가축사육과 축산물의 가격 및 유통동향을 조

사, 분석하고 이에따른 전망을 농가에 알림으로써 농가가 스스로 생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여 과잉, 과소 생산을 예방하고 가격의 진폭을 극소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예고제를 실시한다.

소와 돼지의 가격 및 유통동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축산물 유통예고제는 최근의 사육·수급·가격동향과 3개월 또는 6개월 후의 사육수급·가격전망을 연 4회(2,5,8,11월) 정기적으로 축산관측보에 게재하거나 수시로 예고 전단을 제작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각 축산농가에 배부한다.

■ 춘천축협 도계장 준공

강원도 춘천축협(조합장·황인성)은 도계장을 착공, 8개월만인 지난 7월 5일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 지역 출신 홍종욱 국회의원, 김완주 중앙회 감사, 관내 기관장, 조합원 등 5백여명이 참석했는데 춘천축협은 도계장 준공과 함께 생산자를 보호하고 춘천시민 및 춘성군민에게 위생적인 닭고기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날 준공된 도계장은 부지 53,102m²에 건평 386m²의 규모로 1일 8시간 작업으로 약 1,200수의 도계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

■ 동물약품편람 출간

동물약품편람이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최죽송)에 의해 출간되었다.

이 편람은 1,400여종의 동물약품을 신경계용약, 기관계용약, 대사성약, 항병원성약,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제제 등 약효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84-16호로 부가가치세법시

행규칙 제23조의 2 제 6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식물성 유지제조업, 제분업 농업용 수공구 제조업 등이 포함되었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기준

재무부는 고시 제84~13호로 외국인 투자업체 중 국제 수지의 개선에 현저히 이바지하는 사업, 고도기술 또는 대규모 자본을 수반하는 사업,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소득세 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 동물약품 제조업, 식료품가공기계제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물약품 제조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었는데 현재 외국의 유수 업체들이 국내의 기존 동물약품 제조업체와 자본 투자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형사판례

음료수와 막걸리값내기(4천원상당) 화투 놀이와 도박죄의 成否

올림픽 경기종목에 고스톱이 채택되면 우리도 많은 금메달을 얻을 수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화투 놀이가 성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투 놀이는 도박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더욱 건전한 여가선용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피고인 강석희 외 3인
- 상고인 각 검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12.14 선고 83도 545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도박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소위는 피고인들이 작업을 나간 자신들의 차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들이 취식한 막걸리, 음료수의 값 4,000원 상당을 각출하기 위하여 각기 2,000원 정도의 금원을 소지하고 1회 3점에 300원씩, 판돈합계 8,500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이니 이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심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궁이 가고 채증을 잘못한 위법은 없으며 피고인들은 차주로서 이건 화투 놀이의 동기, 목적, 판돈의 사소함, 장소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화투놀이는 오로지 오락을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같은 견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옳고 거기에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판결)

◎ 농수산부공고제 84 - 15호

축산물 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년 7월 6일

농수산부장관

1. 법령제명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안
2. 개정취지 :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가. 축산물작업장의 시설근대화를 위해 작

업장의 시설기준을 구체화 하였음.

나. 축산물 위생기구 및 용기의 규격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도축검인·도축검인용 색소, 착유기, 냉각기, 집유탱크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우유병의 종이마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다. 축산물 위생관리의 철저를 위해 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 하였음.

라. 밀도살 및 불량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그 사건의 공소가 제거되거나 기소유에 또는 기소중지의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4.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4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수산부장관(참조: 축산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590-4613)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농정활성화방안 마련

—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기자회견 —



박종문농수산부장관은 각 신문사 기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8일 농정활성화 방

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장관은 벼 병충해 방제, 돼지 및 소값 안정, 사료곡물의 다양화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그중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곡물의 다양화와 국산화

○옥류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사료수요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료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84년의 경우만 해도 사료곡물 사용량의 96%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대두박, 강피류 등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8억 4천만불임.

○정부는 매년 늘고 있는 외화부담을 덜기 위해 사료곡종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값이 비싼 옥수수의 사용비율을 90%에서 60% 이하로 낮춰 1천 4백만불('84. 6말 현재)의 외화를 절약하고 사료가격도 안정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옥수수 대신 수수, 귀리, 호맥 등으로 사료곡물을 다양화할 계획임.

○또한 사료의 국내자급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내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지, 사료비작물, 옥수수 등을 확대재배하고 국내산 보리도 금년 하반기부터 사료로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할 것임.

사료품질 관리

○사료곡물을 옥수수 위주에서 다른 곡종으로 다양화 시키자 사료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일부여론이 있었으나, 최근 사료품질에 대한 일제 검사결과 영양가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앞으로 사료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료관리법을 고쳐 사료공장의 자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등 사료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임.